제목	북경시, 1년 동안 무허가 요식업체 단속 계획		
출처	• 中国食品安全报(www.paper.cfsn.cn)	게재일	2016. 1. 7

○ 북경시 식약품관리감독국은 올해 1년 동안 무허가 요식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힘. 현재 북경시 전역에 존재하는 수많은 무허가 요식업체들은 올해 말까지 합법적인 경영을 하게 되거나 혹은 퇴출될 것임.

– 현재, 무허가 요식업체 중 소규모 식당, 노점상, 관광농업촌, 학교 및 탁아소가 하지하는 비중이 각각 50%, 27%, 14%, 5%, 4%를 차지함

– 지역으로 보면 챠오양구(朝阳区), 하이디엔구(海淀区), 펑타이구(丰台区), 통저우구(通州区), 창핑구(昌平区), 다싱구(大兴区) 등 6개 지역의 무허가 요식업체가 전체의 3/4을 차지함

○ 단속을 통해 북경시의 무허가 식당들을 합법적인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고 불응할 시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퇴출시킨다는 계획임

– 1월 중에 북경시 각 지역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부처를 동원하고, 2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하여 연말까지 지속할 계획임